

## 중동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실물경제 영향 점검 철저 지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 주문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4.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경제부총리 주재, 기획재정부 1·2차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등

최 부총리는 금일 오전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 하면서 관계기관 협업 하에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였다.

\*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외교부·산업부·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 참석

특히,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밀한 공조 하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재점검과 함께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 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사무관	김영진 (kimsupa304@korea.kr)